

S-OIL, 새 성장전략 '비전 2030' 선언



1 후세인 알카타니 에스오일 CEO
2 에스오일 울산공장

에스오일(대표 후세인 알 카타니)은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 등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 성장전략 체계인 '비전 2030'을 발표했다.

'비전 2030'은 미래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확고한 경쟁 우위를 지속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목표 그리고 투자 로드맵 등으로 이뤄

는 동시에, 수소·연료전지·리사이클링 등 신사업 분야에도 진출해 회사의 지속 성장을 견인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새 비전 2030에 '클린'(Clean)을 명시함으로써 친환경과 경영활동의 투명성, 도덕성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 의지도 밝혔다.

에스오일 후세인 알 카타니 CEO는 "신사업 분야에서도 전략적 검토를 지속하면서 성장 기회를 모색해 비전 2030을 반드시 달성하겠다"며 "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자산인 모든 임직원은 경영환경 변화에 더 창의적으로 대응하고, 원팀(one-team)의 정신으로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에스오일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비한 장기 성장전략 수립을 위해 직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경청하고 여러 차례의 경영진 워크숍을 열어 새 비전을 수립했다.

에스오일은 수소경제의 확대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버스, 트럭의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련 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에 참가를 검토하고 있다. 또 서울 시내에 복합 수소충전소 도입을 위한 입지 선정과 경제성 검토 등 수소 경제 생태계 조성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운전 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주유소의 판매 증대를 위해 다양한 신사업 기회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카카오페이와 제휴, 정유사 최초로 주유소에서 '카카오페이 결제'를 도입했다. 전국 에스오일 주유소 200여 곳이 카카오페이 가맹을 신청하는 등 카카오페이 결제 도입이 빠르게 확산했다. ▼



에너지·화학산업의 가장 경쟁력 있는 이름 에스-오일이 뛰고 있습니다

석유제품 수출로 세계 속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석유화학 분야로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에스-오일 국내 석유화학 단일 플랜트 투자 중 최대 규모인 RUC·ODC 프로젝트로 핵심사업의 경쟁력과 차세대 성장동력을 굳건히 다지며 더 큰 내일로 도약합니다

